

통일 칼럼

주한미군 재편 문제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로 확정됐다. 회담에선 우리 안보와 직결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비롯해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력이었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이미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갑판 위의 항공기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솟아오른 모습은 2010년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해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한 장면이다. 하지만 2013년을 끝으로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의 동원 훈련은 사라졌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미 서해에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여러 척에 맞서는 전력의 상시 배치돼 있다고 미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침묵하지 않는 이른바 ‘불침항모’는 바로 한반도의 한국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대북 전력이었던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으로 확대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모두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반도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전력 배치와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올해 초부터 교육용으로 배포한 지도는 남북이 180도 뒤집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지도와는 달리 타이완과 필리핀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약 2년 전, 주일 미 육군 사령관이 이처럼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내걸고 중국의 위협을 지적했을 때에도 포착된 바 있었던 그 지도다. 실제, 주한 미 공군의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장거리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최첨단 무인기, MQ-9 리퍼가 미군의 군산 기지에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MQ-9 리퍼는 작전반경이 약 1,000km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온다. 주일 미 공군이 운용해 온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해 오산 기지로 옮기고, 군산 기지의 F-16도 오산으로 옮겨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하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전력 재편은 한반도 밖에서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달 최신에 극초음속 미사일 ‘나크 이글’을 호주 북부에 투입했다.

사거리 약 2,700km 가량, 최대 속도는 음속의 17배로 탐지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기다. 나크 이글이 미 본토 밖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태평양 진출과 방어를 위해 설정한 제2도련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사실상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며 중국을 적극 견제하기 위해 나선 모습이다. 일본의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과 가가함은 실질적으로 경량급 함모로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해 항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또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가가함을 투입해 미국, 영국 등이 참여하는 서태평양 합동 훈련에도 나섰다.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떤 군사적 시위를 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반면에 미국의 동맹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내놔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탈린부터 푸틴까지, 러시아는 살인 국가”



지난 21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1988년 소련 주도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상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 소련은 1968년 8월 20일 동맹국들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 당시 피어났던 민주주의의 싹인 ‘프라하의 봄’을 무력화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 평화적 협상을 통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됐다.

루마니아에서 맞는 우크라이나 독립 기념일



지난 21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우크라이나 독립 34주년 기념일(24일)을 앞두고 열린 행사 참석자들이 대형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은 필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에 맞춰 새만금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RE100 산단 지정이 필수적이다. 새만금은 이미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통해 준비가 돼 있어 RE100 산단 지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국내 산업계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재

생에너지 공급?신속한 정책 집행?글로벌 투자 매력도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최적의 RE100 산단 후보지다. 새만금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육상 태양광 300MW 사업을 준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중이며, 인근에는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에너지 기반은 RE100 실현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입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기준을 충족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종합보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첨단·친환경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기준 충족과 수출시장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다.

‘토트넘의 전설’ 손흥민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와 계약한 손흥민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스타탄생을 예고했다. 당시 나이 18세였다. 네덜란드의 축구 전설 뤼트 판니스텔로이는 한눈에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손흥민은 이후 2013년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기면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 언론이 손흥민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1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이적이 계기였다. 3000만유로(약 480억원)의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와 함께 5년 계약을 맺으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됐다. 손흥민이 8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 작별을 고했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그에게 뉴캐슬 선수들까지 도열

해 박수로 배웅했다. 손흥민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토트넘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팀 역대 최다 득점자는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은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015년 이적료 2200만 파운드(약 405억원)에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다음 시즌부터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2021~2022시즌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23골) 이정표를 세웠고 EPL 역대 득점 16위(127골)에 올라있다. 10시즌 통산 공식 경기 성적은 454경기 173골 101도움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